

‘정관장 악연’ 끊었다…페퍼스, 반등할까



4라운드 원정 3-0…새해 첫 승
1~3라운드 3전 전패 열세 극복
조이, 승부처마다 해결사 역할
17일 도로공사 상대 연승 도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천적’ 정관장 레드스 파크스를 상대로 첫아웃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페퍼스는 지난 1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원정에서 정관장을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16)으로 꺾으며 새해 첫 승리를 신고했다.

정관장은 페퍼스 창단 이후 줄곧 ‘악연’을 이어온 상대다.

페퍼스는 2023-2024시즌 막바지까지 정관장을 상대로 17전 17패를 당했고, 2024년 3월 13일 대전 원정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길고 길었던 연패를 처음 끊어냈다.

다만 당시 정관장이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된 뒤 주전들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천적’ 구도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어 페퍼스는 2024년 11월 27일 대전 원정에서 정관장을 3-1로 잡아내며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다.

이어 2025년 2월 19일엔 홈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을 첫아웃(3-0)으로 제압하며 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승수(10승)를 달성했다.

정관장전 열세는 올 시즌에도 이어졌다.

페퍼스는 1~3라운드 맞대결에서 정관장에 3전 전패를 당하며 승점조자 얻지 못했고, 11월 21일 2라운드 정관장전은 길어진 9연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관장이 올 시즌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패배들이 더 뼈아팠다. 하지만 이번 대결은 달랐다.

이날 페퍼스는 범실을 14개로 줄이고, 블로킹 10개를 합작하며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했다.

1세트 중반까지 접전이 이어졌지만, 페퍼스는 상대 범실 속 연속 득점에 성공한 뒤 조이의 후위공격



페퍼스가 지난 1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원정에서 정관장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었다.

(KOVO 제공)

과 박은서의 리코프로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도 15-15 동점에서 박은서의 오픈 공격과 하혜진의 블로킹이 연이어 터지며 승기를 잡았다.

3세트에서는 조이가 10득점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조이가 27점으로 공격을 책임졌고 블로킹 4개, 후위공격 7개를 더하며 승부처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어 박은서(9점)와 시마무라(7점), 하혜진(6점)도 고른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관장은 박은진이 9점으로 분전했지만, 주포 자네가 5점에 묶이며 공격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

이날 승리로 6위 페퍼스는 승점 24(7승14패)를 쌓아 7위 정관장(승점 18·6승15패)과의 격차를 6

점으로 벌렸다.

페퍼스는 새해 첫 승리를 신고하며 3연패를 마감했고, 정관장은 3연패에 빠졌다.

승부처에서 뒷심을 발휘하는 등 시즌 초 달라진 페퍼스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이제 관건은 한 경기 승리가 아닌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방적인 승리를 만든 페퍼스는

남은 라운드에서 집중력과 안정감을 이어가야 한다.

페퍼스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홈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천적을 넘어선 이번 승리가 남은 시즌 반등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짝 승리’로 남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대한항공·KB손보 “울스타 휴식기 반갑다”

부상·이탈 선수 복귀…상위권 순위 경쟁 본격화

남자 프로배구 7개 구단 중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은 오는 25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스타전이 기다려지는 팀들이다.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 모두 주축 공격수가 전력에서 이탈해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의 울스타 휴식기에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두 대한항공의 토종 간판 공격수 정지석은 지난해 25일 KB손해보험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 오른쪽 발목을 다치면서 8주 진단을 받고 재활 중이다.

외국인 주포 카일 러셀(등목명 러셀)과 쌍포를 이뤘던 경기당 평균 16.8점을 사냥하며 성공률 55.8%의 순도 높은 공격력을 뽐냈던 정지석의 부상 공백 여파는 적지 않았다.

파죽의 10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하던 대한항공

(승점 42·14승 7패)은 최근 4연패 부진에 빠져 2위 현대캐피탈(승점 38·12승 8패), 3위 KB손보(승점 37·12승 10패)에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됐다.

대한항공은 정지석 부상에 이어 대테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던 임재영마저 지난 28일 우리카드전에서 왼쪽 무릎 연골을 다쳐 수술받고 재활 중이어서 전력 손실이 커졌다.

다행히 정지석은 재활 속도가 빨라 울스타 휴식기 직후인 2월 초 합류 가능성이 있어 대한항공으로선 천군만마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0일 한국전력과 원정경기를 치른 후 울스타 휴식기를 거쳐 열흘 넘게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31일 KB손보와 홈경기로 5라운드를 시작한다.

KB손보는 외국인 선수 안드레스 비에나(등목명 비에나), 토종 공격수 나경복, 임성진과 공격 주축

으로 활약했던 아시아 쿼터 모하메드 야쿰(등목명 야쿰)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야쿰은 구단에 양해를 구하고 지난 9일 고국인 바레인으로 돌아갔다.

KB손보는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전 감독 사퇴 후 하현용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후 최근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야쿰이 빠지면서 공격 옵션이 줄어 대한항공, 현대캐피탈과 치열한 상위권 순위 다툼에서 야쿰의 공백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KB손보는 야쿰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복귀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쿰이 울스타 휴식기를 전후해 선수단에 합류한다면 KB손보로선 1위도 도전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지석이 빠진 대한항공과 야쿰이 이탈한 KB손보가 울스타전 이후 선수들의 복귀 효과를 누리며 상위권 순위 경쟁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우즈, 켈카 PGA 투어 복귀 긍정 평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즈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에서 열린 스크린 골프 대회 TGL 경기 시작에 앞서 켈카의 복귀에 대해 “PGA 투어에 중요한 의미”라며 “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PGA 투어 미래경쟁위원장에 선임된 우즈는 “켈카도 (LIV와 계약 종료보다) 1년 일찍

PGA 투어에 돌아오고 싶어 했다”며 “크리스마스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13일 복귀 회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LIV 골프로 떠났던 켈카의 PGA 투어 복귀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경쟁위원장이 우즈도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PGA 투어는 켈카 외에 브라이슨 디샬보(미국), 윤 람(스페인), 캐머런 스미스(호주)도 복귀 회원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라며 복귀를 사실상 권



유했으나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LIV 잔류 의사를 밝혔다.

우즈는 이날 TGL 소속팀인 주피터 링크스의 경기에는 뛰지 않았다.

경기 시작에 앞서 칩샷이나 퍼트 등으로 가볍게 몸만 풀었다.

주피터 링크스 소속인 김주형도 출전하지 않았다.

우즈는 2024년 7월 디오폰을 끝으로 공식 대회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과 TGL 경기에만 뛰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WTT 파이널스 홍콩 혼합복식 경기에 나선 신유빈(오른쪽)과 임종훈.

(WTT 인스타그램 캡처)

탁구 신유빈, 종합선수권 혼복 첫 우승 도전

작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 왕중왕전에서 혼합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대한항공)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 79회 전국 남녀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대한탁구협회 종합선수권 대진 편성 결과에 따르면 신유빈과 임종훈(한국거래소) 콤비는 혼합복식에서 본선 2번 시드를 받아 16강부터 시작한다.

신유빈이 종합선수권에 나서는 건 지난 2020년 실업 무대 데뷔 후 처음이다.

신유빈은 수원 청명중에서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한 뒤 국제대회와 경기는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종합선수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단식에는 출전하지 않고 혼합복식과 단체전에만 나선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2024년 파리 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한 ‘황금 콤비’다.

국제탁구연맹(ITTF) 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 콤비인 신-임 조는 작년 12월 WTT 파이널스 홍콩 준결승에서 세계 1위 듀오인 린스동-콰이만 조를 3-1, 결승에서 세계 3위 왕추천-쑤잉사(이상 중국) 조를 3-0으로 차례로 꺾고 우승했다.

신-임 조는 처음 출전하는 이번 종합선수권 첫 우승으로 세계 2위 듀오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각오다.

신유빈은 14세 중학생이던 2018년 대회 때 조대성과 혼합복식에 출전해 은메달을 합작한 적이 있다.

한편 이번 종합선수권 남녀 단식 우승자는 올해 런던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 나설 대한체육회 인정 국가대표(10명)로 자동 선발된다.

/연합뉴스